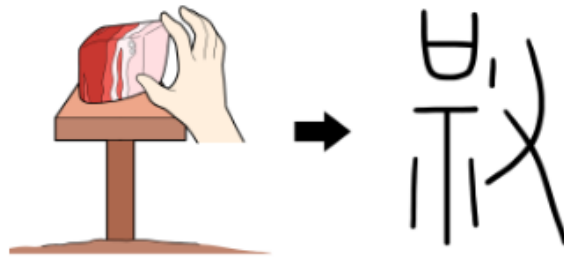


4(2)
-
181

회의문자 ①



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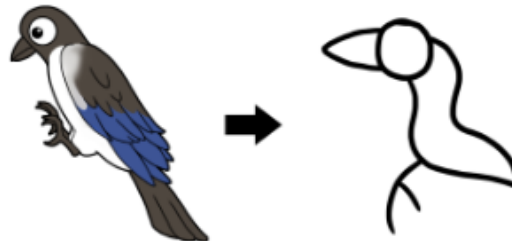
제사 제:

祭자는 '제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祭자는 示(보일 시)자와 肉(고기 육)자,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祭자는 제단(示) 위로 고기(肉)를 손(又)으로 얹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제단 위로 제물을 올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祭자는 '제사지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기에 '잔치'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82

상형문자 ①



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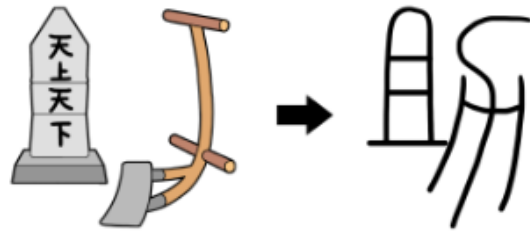
새 조

鳥자는 '새'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미 새를 뜻하는 글자로는 隹(새 추)자가 있지만 鳥자는 모든 새를 총칭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鳥자의 갑골문을 보면 두꺼운 부리와 큰 눈이 묘사된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 어떤 새를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적으로는 鳥자가 '큰 새'를 뜻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鳥자는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새의 종류'나 새와 연관되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83

회의문자①



助

도움 조:

助자는 '돕다'나 '힘을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助자는 且(또 차)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且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행적 또는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석에 글을 새겨 세웠다. 특히 큰 업적을 기리는 비석은 크기가 매우 컸었다. 큰 돌을 깎아 만든 비석을 혼자 힘으로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助자는 비석을 세우기 위해 여럿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돕다'나 '힘을 빌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助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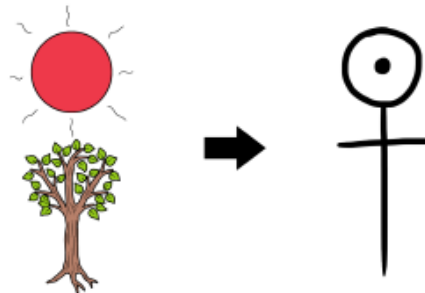
助

해서

출처 : 『한자원리』/한글서체도움 / 『한자원리』/한글서체도움

4(2)
-
184

회의문자①



早

이를 조:

早자는 '일찍'이나 '이르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早자는 日(날 일)자와 十(열 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十자는 숫자 10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나무가 생략되어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 早자는 나무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早자는 해가 나무 위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의 '이른 아침'을 뜻한다.

早

금문

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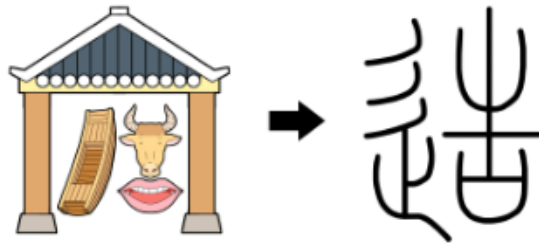
소전

早

해서

4(2)
-
185

형성문자①



造

지을 조:

造자는 '짓다'나 '만들다', '이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造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告(알릴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造자의 금문을 보면 宀(집 면)자 안에 舟(배 주)자와 告자가 𠔁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서 告자는 '고→조'로의 발음역할을 한다. 금문에 나온 造자는 집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造자는 '만들다'나 '짓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소전에서는 배가 삭제되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𠔁

금문

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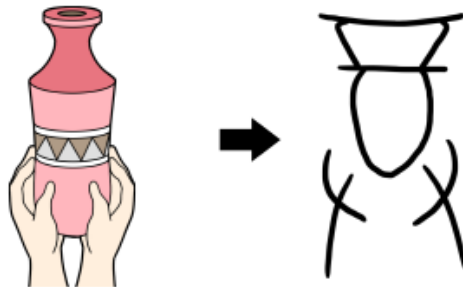
소전

造

해서

4(2)
-
186

회의문자①



尊

높을 존

尊자는 '높다'나 '공경하다', '우러러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尊자는 罇(목은 술 추)자와 寸(마디 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罇자는 잘 익은 술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좋은 술'이라는 뜻이 있다. 갑골문에 나온 尊자를 보면 양손에 술병을 공손히 받치고 있는 𠔁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높은 분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尊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공경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𠔁

갑골문

罇

금문

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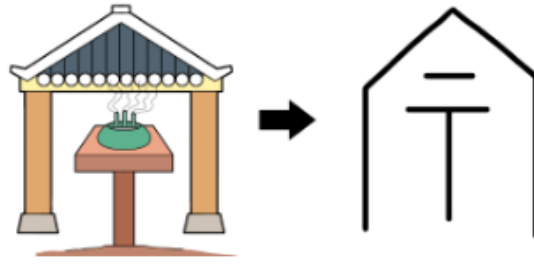
소전

尊

해서

4(2)
-
187

회의문자①



宗

마루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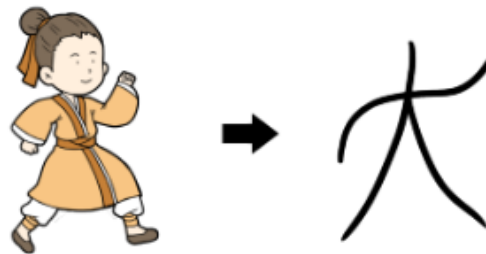
宗자는 '마루'나 '으뜸', '제사', '일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마루'란 어떤 일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으뜸'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宗자는 宀(집 면)자와 示(보일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示자는 제물이나 향을 올리던 제단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집을 뜻하는 宀자가 결합한 宗자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조상신을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혈족의 장손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宗자는 모든 것의 가장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제사'나 '일족'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 宗(宗)

4(2)
-
188

회의문자①



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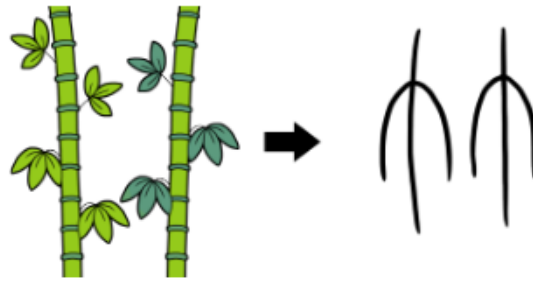
달릴 주

走자는 '달리다'나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走자는 土(흙 토)자와 止(발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走자의 갑골문을 보면 양팔을 휘두르며 달리는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후 금문에서는 발아래에 止자가 더해지면서 𠂔 '달리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의 走자는 달리는 모습과 止자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走자는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달리다'나 '뛰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금문에서는 '세차게 달리다'라는 뜻을 위해 3개의 止자를 넣은 글자도 𠂔 등장했다는 것이다. 바로 '급히 가다'라는 뜻의 奔(달릴 분)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89





상형문자 ①



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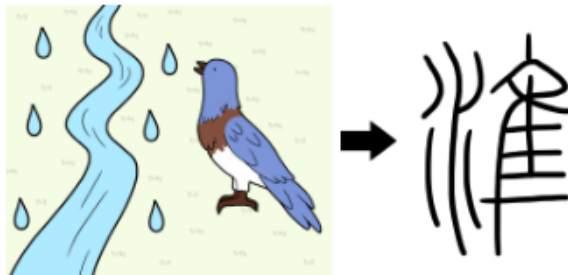
대 죽

竹자는 '대나무'나 '죽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竹자는 두 개의 대나무 줄기와 잎사귀가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竹자를 보면 잎사귀만 늘어져 있는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으나 금문에서부터는 대나무와 잎사귀가 함께 표현되었다. 竹자는 '대나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물건이나 '죽간(竹簡)'을 뜻하게 된다. 또 부수로 쓰일 때는 모양이 바뀌게 되어 단순히 잎사귀 艹 만이 표현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90



회의문자 ①



準

준할 준:

準자는 '평평하다'나 '정확하다', '정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準자는 水(물 수)자와 隹(송골매 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햇대에 송골매가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準자는 이렇게 새를 뜻하는 隹자에 水자를 더한 것으로 새가 물 위를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準자는 이렇게 새가 물 위를 곧게 날아간다는 의미에서 '정밀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 '기준'이나 '규격', '표준'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소전	해서